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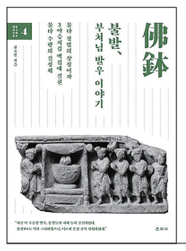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사회복지(프라즈냐총서60)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의 현대적 모색	명안	운주사
2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불광출판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붓다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5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 불교의 마음업 우주에 대한 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6	원각경이가해	함허득통, 감산덕청	운주사
7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산스크리트원전 완역 팔천송 반야경붓다의 사상적 혁명대승 경전의 시작과 그 뿌리	전순환 번역	불광출판사
9	기도의 이유: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중현	불광출판사
10	머리 한번 만져보게 나 극락 간다네(정토문성언집)	함현	담앤북스

책세상

‘부처님 발우’에 담긴 이야기들

〈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이야기

권오민 지음

운주사

3만5000원

부처님 탁발할 때 사용한 그릇
아함, 율장 등서 에피소드 언급
권오민 교수, 불발 이야기 조명
부처님 발우 관련 종합 안내서



영축총림 통도사 용화전 앞에 있는 봉발탑.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돼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발할 때 사용한 공양 그릇을 ‘발우’라고 한다. 부처님이 사용하셨기에 ‘불발(佛鉢)’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초기경전인 아함이나 6부의 율장은 물론 아비달마 논장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렇기에 ‘불발’은 불타가 무량한 세월 동안 쌓아온 수행의 결정체로, 불타 정법의 상징이자 신앙의 대상이 됐다.

실제 한국 불보사찰인 영축총림 통도사에도 부처님 발우가 확인된다. 경내 용화전 앞에는 부처님의 옷과 발우를 미륵보살이 이어받을 것을 상징한 봉발탑(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 있다. 이처럼 부처님 발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신화와 역사, 전설로 교차하며 확대됐다.

30여 년에 걸쳐 경량부를 연구해 온 권오민 경상국립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발간한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를 통해 경전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 발우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으며, 이는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책은 △제1장 트라푸사와 발리카 두 상인의 첫 공양 △제2장 사천왕의 발우 봉납 △제3장 나이란자나 강가 마을 여인의 공양 △제4장 불발, 간다라로 옮겨가다 △제5장 간다라의 불발 신앙 △제6장 불발의 파괴와 정법 멸진 △제7장 불발의 유전과 미륵불의 불발 예배 △제8장 미륵세존과 불발 △제9장 반야바라밀다와 불발 △제10장 우리나라의 불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좇아가면 불발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의 대하드라마와 같다.

불교에서 불발은 처음부터 특별한 것이었다. 경전에서 그것은 사천왕이 바친 것으로,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법에 의해 이루어진, 법을 담는 그릇, 먹어도 먹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는 법기(法器)였다. 〈연화면경〉에 따르면 불발은 3아승지겁에 다시 백겁을 더한 수행의 결정체로 불타 정법의 상징이었다. 불발을 이같이 인식하는 한 그것은 성물로 신앙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시 간다라에서는 불발 역시 불사리(佛舍利)와 마찬가지로 불탑에 안치하여 예배했고, 사천왕이 불타에게 발우를 바치는 모습이나 불제자가 불발에 예배하는 모습은 간다라 불교미술의 하나의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없듯이 불발 역시 그러했다. 불발은 불법(佛法)과 흥망을 함께했다. 정법의 시대에는 찬탄 예배됐지만, 정법이 사라진 말법의 시대에는 파괴를 면할 수 없었다. 불발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계법(戒法)도 파괴됐다. 간다라 사람들에 의하면 말법의 시대, 불발은 바야흐로 간다라를 떠나 인천(人天)의 또 다른 세계로 유전(流轉)하며, 종국에는 미래세의 부처인 미륵불의 세계에 이른다. 부처가 비록 삼세에 걸쳐 수없이 출현할지라도 불법은 하나이듯 불발 역시 그러하여 현겁(賢劫)의 천불(千佛)은 하나의 발우를 함께 사용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불발을 미래세의 새로운 주인인 미륵불에게 전하는 일도 당연히 사천왕의 몫일 것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버전의 이야기도 존재한다. 석가모니불이 각별히 신뢰하였던 마하가섭을 통해 전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가섭존자는 왕사성의 계족산중 지하암굴에서 석존의 가사와 발우를 든 채 반열반(멸진정)에 든 상태로 57억년 후에 출현할 미륵불을 기다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의 선종에서는 마하가섭에게 전해진 불발은 깨달음의 신표로서 보리달마를 거쳐 역대 조사에게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6조 혜능의 전기를 서술하며 이와 관련된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했다. 〈삼국유사〉와 〈송고승전〉에서는 각기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이 자장율사와 진표율사에게 전해 주었다고 설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이 창건한 통도사와 금산사, 진표의 제자 영심이 창건한 법주사는 어떤 식으로든 불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듯 통도사의 봉발탑을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흔히 불교는 실천적 수행의 종교지만, 동시에 비유와 스토리가 풍부한 대중적 신앙의 종교이기도 하다. 부처님 발우 이야기만큼 대중의 호기심에 부응하는 스토리텔링 또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불교의 귀중한 전통이자 자산이다.

불교적 생활 지혜를 담다



붓다의 생활 수업

박경준 지음

우리출판사

1만8000원

〈붓다의 생활 수업〉은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저자인 원로 불교학자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분명하다. 수행 지침만이 아니라 생활 지침도 필요해서다.

“이제 불교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지침만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대한 생활 지침까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머리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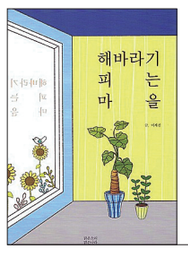
이를 위해 책의 내용 또한 ‘먹다-식탁에도 성찰이 필요하다’ ‘입다-내면의 멋과 향기가 우러나와야’ ‘자다-죽음보다 깊은 잠’ ‘사랑하다-본능의 성 혹은 인간적인 성’ 등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막연한 실천담론을 전하지 않는다. 초기불교 문헌은 물론 대승불교의 경·논서, 더 나아가서는 현대의 석학, 작가들의 글에서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고, 이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햄버거용 소고기 100g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이 2000L이고, 햄버거 한 조각 때문에 사라지는 숲이 약 5㎡(1.5평)라고 한다. 이처럼 육식은 윤리, 환경, 나아가 건강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교인들도 이제 육식의 전면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명 존중과 환경의 관점에서 무절제한 육식문화를 돌아보고 소박한 식생활을 선도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19p)

〈붓다의 생활 수업〉은 불교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불교의 가르침과 생활 실천 지침을 전하는 실용서다. 신중일 기자

불자 아나운서의 담담한 수상들



해바라기 피는 마을

이계진 지음

맑은소리맑은나라

2만원

넘치는 세상이다. 말과 글, 생각과 논쟁, 대화와 소비, 감정과 갈등, 사건과 사고, 거짓과 진실. 대응하고 대립하는 모든 것들이 흘러넘쳐 피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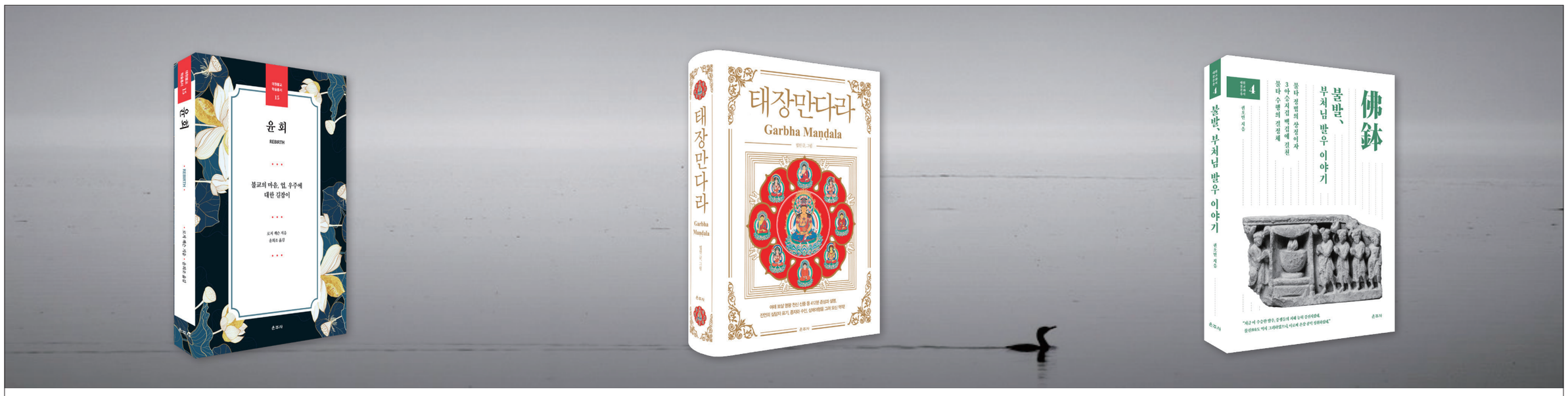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연을 닮은 싱그러운 소리와 솔직한 마음과 날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 씨도 정장과 넥타이를 차려입고 정제된 언어로 세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여의도에서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어느날 ‘화개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온 그만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해바라기 피는 마을〉은 저자 이계진이 자연과 호흡하여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는 같은 이름의, 지난 2004년에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 ‘해바라기 피는 마을에’ 20여 년 동안 연재해 온 글들을 추리고 다듬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안에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 흔한 보통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값진 교훈을 저자만의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불자인 만큼 법정 스님과의 차담 에피소드 등도 담겼다.

책에 실린 62편의 글과 채 다 실을 수 없었던 200여 편의 글 속에서 늘 주인공은 ‘사람’이다. 자신과 누군가의 경험과 목소리를 옮겨 실었으며, 알 수 없는 타인의 삶과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과 이해와 행복이 넘쳐흐르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자의 발자국이 읽는 이의 마음에도 뚜렷이 찍힌다. 신중일 기자



‘윤회는 실재하는가, 방편인가?’

윤회

불교에서 윤회에 관해 다룬 최초의 포괄적인 안내서이자, 윤회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최초의 이론적 연구서이다.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신국판/무선/408쪽/값 25,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컬러/688쪽/값 100,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